

**복현유사**



〈예쁘게 주름 진 복현1동〉 그림 : 김현진

잊혀져 가는 것을 영원하게 만드는 기록,  
저물어가는 것을 반짝거리게하는 이야기,  
복현유사를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현1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보다  
살기 좋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삶의 모습도 조금씩 잊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억하고 싶은 것,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현유사 프로젝트에 함께한 청년 편찬자들은  
복현1동 주민분들과 만나서 하마터면 잊혀질 뻔한  
기억들을 영원히 남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현유사는 몇 차례 인터뷰와 답사한 내용을  
통계와 숫자, 딱딱한 도표로 이루어진 보고서만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내용을 통해 가치 있다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각색하여 아기자기한 동화 같이,  
신비한 전설 같이, 흥미로운 소설 같이 남겨보았습니다.

잔잔한 감동, 소소한 재미가 있는 복현유사를 통해  
저물어가는 복현1동을 반짝거리는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6**

어린 제비의 정겨운 눈으로 바라본 복현1동

제비 이야기 - 김현진

**12**

운명에 맞선 멋진 사내와 신비한 복현 도깨비 이야기

사내와 복현도깨비 - 김민국

**18**

복현1동의 이야기가 강처럼 흐른다

가람전 - 박규훈

**24**

가장 소중한 선물은 기억이다

복현암이 남긴 선물 - 이예지

**32**

복현1동이 행복한 이유

배자못과 행복현동 - 윤석환

**38**

어르신들의 기억을 더듬어

복현1동 어르신들의 언어가 곧 '시詩'였다

**45**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으로 써내려간 詩들

〈시 1 : 나의 소원〉

〈시 2 : 제비가 오면〉

〈시 3 : 가람이에게〉

**48**

복현유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젊은이들이 기록하다

# 제비 이야기

김현진

## 1

나는 제비예요. 까만 턱시도 같은 꼬리 깃과 붉은 리본이 멋있는 바로 그 새랍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나를 잘 보기 힘들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봄마다 찾아오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따뜻한 바람을 따라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새 나뭇잎이 나는 계절이 되면 내가 태어났던 마을로 돌아와 집을 짓지요.

내가 태어난 곳은 ‘복현’이라는 마을이에요. 나의 엄마도 여기서 태어났고 나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도 여기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대를 이어 복현마을에서 살아온 것이랍니다. 흙벽돌로 지은 작은 집 지붕 처마 밑 목 좋은 곳에 열심히 풀과 흙을 물어다가 흙집을 지으면 아늑하니 얼마나 좋게요. 처음 날갯짓을 배울 때 엄마를 따라 복현마을 곳곳을 놀러 다니며 이야기 듣는 것도 참 재미있답니다.

## 2

나의 집과 가까운 곳엔 복현마을 사람들이 모여 필요한 걸 주고받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제철과일과 채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곳을 시장이라고 부른대요. 큰 시장에 비하면 작고 조용한 골목처럼 보이지만 엄마가 어릴 때는 골목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활기찼대요.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는 자동차가 잘 다니지 않다보니 사람들이 쉽게 걸어 다니고 물건도 많이 사갔답니다.

엄마가 막 나는 법을 배워 할머니를 따라 동네 곳곳을 놀러 다닐 때는 높고 네모난 건물이 많이 없었대요. 그리고 복현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다른 마을에서까지 어린이들이 찾아 왔대요. 학교가 마치면 골목에서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느라 시끌벅적했답니다. 지금은 복현마을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 줄어서 조금 아쉬워요.

## 3

붉은 색깔이 아름다운 장미공원은 내가 종종 장미꽃을 보러 놀러가는 곳이에요. 장미공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장미가 많이 피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공원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의 할머니가 어릴 때 기억하기론 언덕배기에 야생냉쿨장미가 무성했대요. 아직 사람들이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인데, 빈터에 마을 사람들이 의자와 탁자를 놓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했대요. 누군가 꾸미지 않아도 오랫동안 새잎이 나고 장미가 활짝 피는 모습을 매년 볼 수 있었다니, 상상만 해도 향긋한 봄이에요.

아침, 그때는 마을 전체에 집이 많이 없고 빈터가 많았대요. 골목골목 가득한 건물들만 봐온 나로서는 잘 상상이 잘 안 가지만, 붉고 넓은 바위가 곳곳에 많이 있었답니다.



층이 지고 퍼석한 가로줄 무늬가 있는 큰 바위였는데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면서 모두 깎여나갔을 거예요. 나지막한 언덕은 학교로 가는 오르막길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까만 시멘트를 걷어내면 붉은 바위를 볼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때의 복현마을 모습이 궁금해요.

#### 4

커다란 연못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증조할머니와 할머니가 엄마에게 들려준 이야기에요. 넓고 깊은 못이 있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뽕족한 나무들이 숲처럼 자라 있었답니다. 복현마을이 아직 붉은 바위 언덕이고 집이 많이 없을 때라서 몇몇 제비들은 못 주변 나무 위에도 집을 지었대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배자못이라고 불렀답니다.

아니, 이런 도시 가운데에 큰 못이 있었다고? 처음 연못 이야기를 들었을 참 신기해서 나는 엄마랑 같이 연못이 있던 자리까지 날아가 보았어요. 다섯 갈래 큰 길이 나 있는 복현오거리 쪽인데, 지금은 아파트가 높이 서 있었어요. 아파트 사람들은 그 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게도, 그 아파트는 배자못을 흙으로 채우고도 한참이나 지나서 지은 집이니까요.

배자못이 메워지기 전, 주변 큰길로 시멘트가 깔리고 자동차가 달리기 전에는 사람들이 소달구지를 끌고 다녔대요. 그 시절에는 마을에 가운데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쓰고 똥지게로 분노를 날렸답니다.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했는데 달구지에 싣고 저 멀리 검단 마을까지 갔대요. 검단마을은 들판이 넓기도 하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분노를 버릴 수 있었어요. 복현마을에서 검단마을로 가는 길 주변에는 미나리광이 넓게 있었답니다.





멀리 다른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학교 소풍을 오기도 했대요. 각자 싸온 도시락을 나무 밑에서 먹고 못 주변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을 거예요. 어린이들은 배자못에서 들리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답니다. 밤만 되면 물귀신이 나온다더라, 불빛이 떠도는 걸 보았는데 도깨비일 것이다, 같은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진짜인지 확인해보자고 의기투합한 몇몇 꼬마들도 있었대요. 집이 멀어서 정말 밤에 찾아오는 아이들은 없었지만요. 증조할머니는 밤에 반딧불이 꿈무늬에서 나는 불빛처럼 푸르스름한 빛이 못 주변을 떠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건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 5

내가 태어난 이곳,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왼쪽,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와야 하는 지붕 낮은 집은 곧 사라져요. 오래돼서 마을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새 집을 짓는다고 해요. 멀리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복현마을로 다시 돌아올 때쯤이면 아마 없어져있을 거예요. 마을사람들이 골목에 앉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답니다. 나는 복현마을 안에서든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는 집, 마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주름살 같은 골목들이 특히 좋았거든요. 복현마을의 옛 모습이 어쩐지,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높고 네모난 건물에는 지붕이 없어 제비들이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나는 복현마을을 한 바퀴 빙 돌아 오래된 지붕의 색깔, 큰 도로와 작은 골목의 모양들을 보고 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이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엄마,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나고 자라왔던 마을의 흔적을 잘 기억해두고 싶어요. 내 이야기는 또 다른 제비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우리는 봄이 되면 따스한 바람길을 따라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올 거랍니다.



## | 편찬자 김현진이 남기는 말 |

어르신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며 옛 마을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 상상했습니다. 새가 되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고, 저는 복현1동 피란민촌에서 나고 자란 한 제비의 입을 잠시 빌렸습니다. 예로부터 사람과 가까우면서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제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집의 모양, 골목의 길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세한 이야기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기억을 조금이나마 따라다녔던 시간이 모두 즐거웠습니다. 어르신이라는 말을 상당히 쑥스러워 하신, 하경진 선생님은 주민분들중에서도 동네 일을 다 맡아서 하신 청년에 속하셨습니다. 그림도 그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글 쓰는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내와 복현도깨비

김민국

### 1

제가 들은 옛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아주 옛날에 말입니다. 비가 후드득하고 쏟아지는 날에 좁디좁은 방 한 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힘차게 울면서 태어난 그 사내아이는 세 살하고도 마흔 세 번째 되는 날,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는 큰 집에서 자랐지요. 자기 몸뚱이만한 커다란 가마솥도 찢고, 동화사터마냥 큰 마당도 혼자서 다 쓸었지요. 그러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잣거리리에 있는 장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두 손에는 동태 두 마리와 고들빼기 한 묶음을 들고 누렇게 익어버린 호박 한 덩이는 등에 지고서 장바닥을 휘휘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 때 동래 장에는 조선팔도에서 가장 용하다는 관상쟁이가 내려와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요리조리 살펴보고는 앞으로의 일 하나씩을 귀뜸해주고 있었지 말입니다. 그런 관상쟁이 옆을 사내는 스스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관상쟁이가 큰 소리로 그 사내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이, 이보게!” 하면서.

사내가 눈을 깜빡이면서 돌아보니 그 관상쟁이가 이리 좀 와보라는 손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가 다가가서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 비가 후드득하고 떨어지는 날 태어났지?”

사내는 깜짝 놀라 그걸 어찌 알았느냐 쏘아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상쟁이는 주위를 스스 둘러보더니.

“자네 얼굴을 보니 앞으로 혼인은 고사하고 부도 못 누리겠어! 내 이 말 전하려고 자네를 급히 불러 세웠네.” 하더니 신출귀몰 홍길동처럼 눈앞에서 평하고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사내는 평상에 앉아서는 깊게 생각에 빠집니다……. 이윽고 눈을 번쩍 뜨더니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더니 집을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내는 굳은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 2

“어차피 내 그러한 팔자라면 이 조선팔도 방방곡곡 한 번 누벼보고 죽어야겠다. 그 사이 내 팔자가 바뀔지 또 알게 무엇이냐!”

그렇게 사내는 짚신 두 켤레를 보따리에 던져 넣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사내는 발길 닿는 대로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한양에서는 바다 건너온 번쩍거리는 돌들도 보고, 순천에 가서는 해삼(海蔘)에다가 석수어(石首魚), 광어(廣魚) 같이 팔딱거리는 생선을 배터지게 먹어도 보고, 지금의 울산인 서생포에 가서는 처용탈을 쓰고는 마음껏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경상도로 들어와 금호강을 따라 흘러 흘러 걸어서 한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곳이 바로 복현(伏賢)이었습니다.

## 3

사내는 산등이 기다란 진등골을 건너 배자뭇이라고 하는 커다란 연못을 서쪽으로 빙빙 돌아 복현에 들어서니 깊고도 맑은 우물 하나가 떡하니 보여 가서 목을 축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우물을 들샘이라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새소리도 청명하니 참으로 고즈넉한 동네였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끈이 툭툭 다 터져버린 짚신을 얼른 바꿔 신고는 동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저 벌판 끝에 두 칸짜리 초가집이 있어 조심스레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안에 누구 계시오? 내 여기 날이 어두워져서 그러니 내일 동틀 때까지 눈 좀 붙여도 되겠소?” 해도 아무런 기척도 안 들리는 게 꼭 흥가만치로 그런 느낌을 딱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내는 내 팔자 더 무서울 게 무엇 있겠느냐 하면서 들어가서는 다리를 뻗고 누웠습죠. 사내는 하루가 고단했던 터라 바로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밖이 웅성거리는 수상한 기척을 느낀 사내는 눈을 슬며시 떴습니다…….

## 4

문을 툭하고 열고 나가니 동네 꼬마가 저 멀리서 뛰어오더니 사내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도깨비 집에서 주무시면 어쩍니까요? 지금 도깨비들이 다 깨어났습니다요! 지금 배자뭇에 벌-경고 시-퍼런 도깨비불이 일렁일렁하더니 우리 동네 아씨를 잡아갔지 뭘니까요?!”

사내는 윷도리를 입는 등 마는 등, 신을 신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꼬마와 허겁지겁 못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락부락하게 생긴 도깨비 놈들이 동네 아가씨를 업고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불길을 뛰어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벌써 부리나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도깨비 놈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즐거운 모양인지 노래를 부르며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위에서 춤을 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녀석은 놈들의 대장인지 팔 척되는 키에다가 퍼런 뿔을 달고 얼굴에는 커다란 눈알 하나만

턱 있고, 또 한 녀석은 몸집은 어디 새끼짐승마냥 쪼그만게 고약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나, 또 다른 한 놈은 머리에는 바가지를 뒤집어쓰고는 거적 떼기를 입고 멍청-허니 바보 같고 마지막 놈은 보라색 뿔을 세 개나 머리에 달고는 입술이 퉁퉁 부어있는게 영락없이 광대 같았지요.

## 5

사내는 어찌면 이 도깨비떼들을 확 잡아버리고 아씨를 구해올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물에 빠진 동자승을 구해주고는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언뜻 지나갔습니다.

“도깨비들은 불에서 태어나 불덩이와 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은 모두 머리에 달린 뿔에서 나옵니다. 뿔을 가려버리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지요.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사내는 눈을 부릅뜨더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팔도구경도 하고 좋은 선인들도 족히 만났으니 이제 더 바라는 것 없다. 좋은 일하다 떠나는데 무슨 미련 남으리.”

그러더니 동네 꼬마들을 전부 불러 몰래 이렇게 말했지요.

“저기 들샘에 가서 물을 세 물동이 가득 길어오거라. 그리고 이 복현에는 말기만 해도 탁주를 마신 것 마냥 얼큰해지는 장미꽃들이 많다고 들었다. 장미꽃잎도 두 주먹 가져오니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꼬마들뿐만 아니라 복현 사람들 모두가 힘을 모아 가득찬 물동이 세 통과 장미꽃잎 한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사내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천둥소리와 같은 기합과 함께 도깨비들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도깨비들은 갑작스런 일에 뿔이 휘둥그레 커지며 소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간 세상에 저런 작자가 있었더냐?”

이 틈새에 사내는 속전속결로 도깨비의 뿔에 장미 잎들을 훌뿌렸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눈이 시리하고 풀리더니 실실 웃으며 방망이를 떨어뜨리지 됩니까? 사내는 그 사이에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도깨비 놈들 안으로 들어가 아씨를 안고 나오면서 도깨비들 발밑의 불길에 물을 -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도깨비들 몸집이 서서히- 서서히- 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도깨비들은 사내에게 짹짹 빌고 울면서 소리치더랍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감히 이런 분을 몰라 뵈고 말입니다요. 그러지 말고 저희를 살려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사내는 되물었지요.

“내 정녕 그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그렇습죠. 그렇습죠. 당연합니다요.”

그렇게 배자뭇의 물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질 때쯤 마을의 아씨가 사내한테 오더니 혼인을 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내는 휘이휘이 손사래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씨, 저는 혼인을 할 팔자가 못 됩니다. 게다가 돈이라고는 모이지 않는 팔자입니다.” 하면서 극구 혼인을 못 한다고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서 대장 도깨비가 퍼런 뿔을 속속 굽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그 관상쟁이 말 때문이라면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습죠. 애들아 방망이 두들겨라!” 하면서 외치니 방망이질 한 번에는 기와집과 금은보화가 덜커덕 생기고 방망이질 두 번에는 사내와 아씨가 혼례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둘은 동네에 잔치를 열고 도깨비에게 받은 보화를 복현 사람들과 사이 좋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들 셋, 딸 하나를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흐뭇해지는 이야기 한 편이지요?



### | 편찬자 김민국이 남기는 말 |

이야기 속 사내와 아씨는 여전히 두 손을 꼭 잡고 복현을 이루는 촘촘한 집들 사이 사이를 거닙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배자뭇 위로 우뚝 솟은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떠나는 도깨비들은 터덜터덜 아쉬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은 허물어지고, 마을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의 기억은 녹슬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한 마을에 있습니다. 한 곳을 묵묵히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름답게 내놓은 이야기들, 언어들, 그 자체로 빛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복현에서 살아온 한 평생이 사내와 아씨 그리고 귀엽고 아둔한 도깨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기획자들은 단순히 그 언어들, 조금씩 다듬었을 뿐입니다. 이제 복현이라는 공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누군가는 과거를 상상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복현이라는 공간을 빼놓는다면 공허하게만 느껴질 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살아온 굴곡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뜻 집에도 초대해주신 서성남 어르신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작업을 다 끝내고 돌아보니 단순한 이야기를 썼다기 보다는 두고두고 꺼내볼 졸업앨범을 만든 것 같아 뿌듯합니다. 기록과 보존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 가람전

박규훈

## 1

1944년, ‘가람’은 경상북도 상주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가람의 가족과 이웃들은 식민지의 삶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비극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가람이 7살이 되던 해인 1950년 6월, 남과 북의 이념 대립으로 인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가람의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징집되었다. 가람의 어머니는 그러한 남편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남편이 돌아올 때를 생각하여 피란길에 오르지 않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공산군이 계속하여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에 딸의 미래를 위해 피란길에 오르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낙동강을 넘어 남으로 남으로 이동하여 복현동에 정착하였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피란민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피란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마을이다 보니 다들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집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주변에는 묘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 가람의 어머니는 이러한 환경이 가람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런 것을 다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 2

가람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또래에 비해서 영리하였고 철이 일찍 들었다. 비록 7살의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실까봐 투정부리는 일 없이 어머니를 잘 도왔다.

하루는 어머니를 도와 뒷산에서 나물을 캐고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마을의 공용 화장실 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어 그 쪽 방향을 바라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해골바가지가 물이 담긴 채 자신을 향해 놓여있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가람은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어머니가 가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괜찮은지 물었는데 가람은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그냥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고 다시 씩씩하게 집을 향했다.

## 3

시간이 흘러 가람이 스무 살이 되던 해였다. 전쟁이 끝나 안전에 대한 불안은 줄었으나 전쟁에 의한 상처로 인해 말 그대로 찢어질듯한 가난은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 끓는 청춘들에게 어김없이 사랑은 조용하게 찾아왔고 가람은 이웃의 청년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 해 유난히 덥던 여름에 첫째 ‘마루’를, 그로부터 2년 후 둘째 ‘아라’를 출산하였다. 첫째인 마루는 별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다. 그렇지만 둘째 아라는 유달리 잔병치레가 많아 항상 가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아라가 5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남편은 마을의 정보통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고 가람은 앓고 있는 아라에게 먹일 물을 뜨기 위해 물지게를 이고 물을 뜨러 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물을 뜨고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집 쪽에서 마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가람은 무거운 것도 잊은 채 잽싸게 집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들어서니 마루가 울면서 말하기를 아라가 몸을 움찔하더니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가람은 놀라 얼른 아라를 들쳐 업고 의원으로 달려갔다. 그렇지만 의사의 말로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이미 아이가 죽었다고 하였다. 가람은 믿을 수 없어 그럴 리 없다고 다시 한 번 아이를 봐달라고 하였으나 의사는 충격이 크겠지만 받아들여야한다고, 이런 말 밖에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단호히 말하였다. 가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이 가슴이 찢어지게

슬펐다.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사실을 받아들여야했다. 가람은 돈이 없어 제때 치료해주지 못한 아라에게 정말 미안하였고 찢어질듯한 가난이 원망스러웠다. 번번한 묘비조차 세워주지 못하고 마을의 이름 없는 묘들 사이에 아라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가람은 마루만큼은 정말로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 4

가람은 그날 이후로 기존에 하던 밭일을 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일에 더하여 봉투를 붙이는 일도 병행하였다. 비록 큰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밭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할 수 있었기에 마을의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하는 사람이 많았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서툴렀기에 손도 많이 베이고 속도도 느려서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점점 일이 손에 익게 되자 더 많은 봉투를 가져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봉투가 찢어져 버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어느 날, 가람은 마루와 함께 그간 재배한 콩도 내다 팔고 이듬해 국민학교에 입학할 마루를 위해 그간 봉투를 접어 모은 돈으로 학용품도 사고 모처럼 고깃국도 끓여주기 위해 칠성시장을 갔었다. 교통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칠성시장까지 꽤나 먼 거리를 걸어서 왕래하였다. 다행히 가져간 콩도 다 팔았고 여러 학용품들과 국거리용 고기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어김없이 택시 기사와 승객이 실랑이를 벌이는 익숙한 풍경을 마주했다. 앞서 말했듯이 마을 어귀부터는 도로가 제대로 닦여있지 않아 차가 들어오기 힘들었고 택시 기사들도 마을 안까지 운행하는 것을 꺼려 했다. 그렇지만 승객들은 택시를 탄 것이니만큼 집 앞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을 안까지는 운행을 해줬으면 했고 이에 택시 기사와 승객의 다툼이 자주 있었던 것이다. 양쪽의 입장은 모두 이해가 갔으나 어차피 택시를 탈 일이 없던 가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 5

이후, 또 몇 년이 지났다.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이란 것을 실시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피란민과 수재민들이 모여 살던 복현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배자 못 등 마을의 못 들을 메우고 산을 깎고 묘와 밭 등을 없애 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수많은 묘들 중에서 연고자가 있어 이장할 묘는 신속하게 이장해 달라고 한다. 그렇지만 아라의 묘를 마땅히 이장할만한 곳도, 여유도 없었던 가람은 결국 영원히 잊히지 않을 자신의 가슴 한편에 아라를 이장하기로 하였다.

정착한 이후로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없던 복현동은 새마을운동 이후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집집마다 수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물을 뜨러 물지게를이고 다녀야 할 일이 없어졌다. 또한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버스를 이용하기도 훨씬 수월해졌다. 이와 더불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생겨서 꽤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82년에는 인근에 '복현종합시장'이라는 커다란 상가도 생기면서 편리성도 증대되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경제가 좋아지고 교통은 좋아졌지만 앞집, 뒷집 등등 서로 남이 아닌 가족같이 지내던 많은 이웃들이 복현동을 떠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칸칸이 좁은 방이 줄지어있는 원룸촌이 들어서게 되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던 마을 분위기가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는 모습에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져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가람은 마을에 남아있는 이웃들과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6

어디선가 이러한 말을 들었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가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점점 사실처럼 느껴졌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던 마루가 어느새 결혼을 하여 곁을 떠났다. 항상 곁을 지켜주실 것 같던, 늘 나를 위해 고생하시던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다. 또 어느새 강아지 같은 손자들이 생겼고, 손과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담겼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 또한 느껴졌다. 결국 가람은 세월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눈을 떠보니 팔에는 링거가 꽂혀있고 주변에는 남편과 마루, 손자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가람은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니 자신의 삶은 정말 이름대로 강과 같았다. 구불구불 순탄하진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람은 하늘 아래에서 바다와 재회하였다. 12월의 추운 날씨였지만 전혀 춥지 않았고 오히려 따스함마저 느껴졌다. 강은 그렇게 재회한 바다와 또다시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였다.



### | 편찬자 박규훈이 남기는 말 |

안녕하세요. 저는 가람전을 집필한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 재학 중인 박규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주민 여러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마을의 옛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해주신 주민분들의 개개인의 역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의 역사를 대변할 ‘가람’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가람’을 통해 인터뷰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의 삶을 붙여 이야기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글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이름의 뜻은 각각 가람은 ‘강’을, 마루는 ‘하늘’을, 아라는 ‘바다’를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복현동을 강에 빗대에 구불구불 힘든 일도 겪었지만 결국 끝에 다다라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 바다에 섞여 계속 그 속에 남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모든 이야기들을 다 넣을 수는 없었기에 축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빠진 이야기들을 남기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복현유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신 김보배, 김순제 할머니께, 특히 김순제 할머니덕에서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했는데요. 값진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현동이 정말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복현암이 남긴 선물

이예지

## 1

옛날 옛날에 복현동에는 복현암이라고 불리던 바위 하나가 있었다. 그 바위는 크고 판판한 너럭바위였으며 그 위에 사람이 앉을 수도 있었다. 언제부터 그 바위가 있었는지, 누가 그 바위를 복현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복현동에 사는 사람들 중 야산 언덕에 있던 그 바위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복현동을 흰하게 비추던 어느 밤이었다. 선녀 하나가 희끄무러한 구름 사이를 헤치며 사뿐히 복현동 언덕에 발을 디고 내려왔다. 하늘의 선녀가 무슨 일로 지상에 내려왔을까. 산에 있던 나무와 흙과 달 그리고 동물들은 모두 의아하게 여기며 숨어서 선녀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선녀는 두리번거리며 주의를 살피다 그 둥그렇고 납적한 바위 위로 살며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늘구름 위에서 지내는 것이 지겨웠는지, 어디론가 날아가던 중 힘이 들어 잠깐 쉬려던 것인지는 잘 모른다. 그저 바위의 생김새가 신기하여 내려와 보고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선녀는 달빛을 받으며 한참을 바위에 걸터앉아 있다가 곧 다시 하늘로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단, 한 가지는 빠뜨리고 말이다. 걸터앉아 있던 바위에서 내려오던 순간 선녀는 그만 보석 하나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늘로 승천하여 사라졌다. 오직 나무와 달과 산짐승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 2

강산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긴 시간이 지났다. 복현암은 사라지고 지금은 집들과 원룸들이 즐비한 마을이 되어 있다.

바위가 있던 자리에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러 고향 집을 찾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복현동에서 유년기를 보낸 남자는 취직 후 서울에서 줄곧 지내며 가정을 꾸려, 고향엔 일 년에 두어 번 내려 오는 것이 전부다.

“어머니, 계십니까?”

남자는 굽어진 골목을 들어서 미닫이 대문이 살짝 열린 집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침묵만 이어졌다. 집 안엔 아무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대문을 드르륵 닫고 골목으로 나왔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낡은 의자 두 개가 보인다. 원래는 흰색이었을 빛 바랜 쿠션이 칠이 벗겨진 등받이와 함께 지나간 세월을 자랑하고 있다.

남자는 잠깐 앉을까 생각하다 바람이 좋아 걷기로 한다. 좁은 시멘트 담벼락과 높다란 건물들이 햇볕을 가려주니 이 초여름에 시원한 느낌마저 든다. 큰길로 몸을 돌린 남자는 대학생들을 발견하곤 발길을 멈추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지은 지 얼마 안 된 원룸들이 가득하다.

‘여기 원룸이 이렇게 많았었나...’

문득 예전 아버지, 어머니가 벽돌을 찍어 파셨던 일을 했던 게 떠올랐다. 그래, 그 땐 그런 일을 하면서 벌어먹곤 했는데. 남자는 어머니가 가셨을 만한 장소인 경로당으로 가보기로 한다. 가는 길에 경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보인다.

나도 딱 저 아이들 나이였을 때 이 곳을 뛰어다니곤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며 남자는 웃으며 모퉁이를 꺾었다. 하지만 경로당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경로당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도 없던 동네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찬 것이 아닌가?

### 3

‘이상하다,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동네가 바뀌었나?’

길가엔 다 쓴 연탄재 자국이 남아있고 대부분 비어있던 동네가 집집마다 인기척을 띄고 있었다. 샷다가 내려가 있던 가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북적이며 골목의 활기를 채우고 있었다. 진주상회, 성주 슈퍼, 박씨 구멍가게, 김천 쌀 방앗간…… 모두 오래전에 사라진 가게들이다. 점빵 앞 평상에는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으며 그 앞으론 이제 막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도시락통을 달그락대며 뛰어다닌다. 좀 전의 높은 원룸건물들로 가려져 있던 해는 장애물이 사라진 게 기쁘다는 듯이 다시 강렬하게 집집들을 내리쬐고 있었다.



자신의 어린시절 과거 복현동의 모습이였다. 남자는 당황함도 잠시,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추억의 동네를 다시 마주하니 반갑고 이상한 희열감마저 들었다.

### 4

남자는 가게가 줄지어진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보며 추억을 되짚어본다. 그러다 골목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신의 몸만한 쌀 포대를 킁킁대며 끌고 올라가는 남자아이를 발견한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쌀 포대를 번쩍 들어올리며 말하였다.

“애야, 무거워 보이는데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이는 놀란 듯 주저하다, 마지못해 대답했다.

“괜찮은데……. 그럼 고맙습니다. 근데 다 왔어요. 여기예요.”

남자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파란 대문집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이렇게 잘사는 집이 있었나 싶을 만큼 커다란 집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곧 그 집이 열 다섯 가구가 세 들어사는 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남자가 아이를 따라 마당에 쌀 포대를 내려놓고 집을 나오던 순간 부엌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다.

“에그머니나!”

갑작스런 여자 목소리에 놀란 남자는 소리를 따라 바깥 부엌으로 가보았다. 그러자 그곳에는 옛된 얼굴을 한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천장에서 떨어진 쥐를 보고 놀라 내쫓고 있었다. 남자는 지금 자신의 나이보다 더 어린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복잡한 기분이 들어 후다닥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다. 어릴 적 그가 태어나고 얼마 뒤 지금의 미담이 대문 집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이 집이 그가 태어나기 전 가족들이 살던 집인 것이다. 순간 남자는 우리 다섯 남매를 낳아 기르시느라 고생하신 지금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 5

문득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엄습한 남자는 다시 그 골목 모퉁이로 가보기로 한다. 몇 번이고 과거로 돌아왔던 순간을 재현해보지만 여전히 그대로이다. 망연자실한 상태로 한참을 골목에 멀뚱이 서 있는데 뒤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린다. 똥 지게를 나르는 아재가 목청껏 ‘똥 퍼’를 외치며 이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든 남자는 비켜주려 하지만 골목이 워낙 좁아 한 명이 지나갈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남자는 골목 끝까지 앞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욱 걸어가자 똥 지게꾼은 갈림길로 사라지고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퍼져온다. 지금의 장미공원이 있는 자리에 아무렇게나 덩굴진 장미들이 그득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금은 사라진 나즈막한 산과 배자못까지 한 눈에 보인다.

## 6

그런데 산 언덕에 무언가 반짝하고 빛이 나고 있었다.  
‘저게 뭐지?’

남자는 홀린듯 야산으로 향했다. 남자가 언덕에 도착했을 땐, 그 곳에는 오래전 사라진 복현암만이 있었다. 그저 자신이 잘 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몸과 마음이 지친 남자는 잠시 바위위에 걸터앉았다. 그 너럭바위 옆에는 차곡히 쌓여진 소원돌탑들이 무성하다. 남자도 바닥에 예쁘고 반짝이는 돌 하나를 주워 돌탑 위에 쌓으며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뜬 들이다 다시 생각한다.

‘나는 언젠가는 지금 복현동이 발전하고, 사람들 형편이 나아지는 시기가 올 것을 압니다. 그 시대에서 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 살아가는데 더 힘이 되겠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루 빨리 세상 좋아졌다며 웃을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남자가 쌓은 돌멩이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눈을 질끈 감았다. 남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땐, 과거로 돌아갔던 그 골목길 모퉁이에 서있었다. 어안이 병병한 채 산이 있던 자리를 쳐다보며 이게 다 꿈인가 싶었다.

“우리 아들 왔냐?”

남자는 어머니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어디 갔다 이제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머니는 내가 알던 늙은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남자는 괜시리 반가운 마음이 격해져 서둔 발걸음으로 집으로 앞장섰다. 집 앞에 다다르자 대문 앞의 낡은 의자 두 개가 보인다. 칠이 벗겨진 의자 등받이가 주황색 노을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 | 편찬자 이예지가 남기는 말 |

제가 인터뷰한 ‘한영자’ 어르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습니다. 옛날엔 딸린 자식들도 많고 먹고 사는데 풍족함이 없었으니 그것은 어르신 뿐아니라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힘들었던 과거를, 되돌아가고 싶은 고향의 향수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리워하는 복현동의 옛 모습을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을 통해 등장시켰습니다.

지금은 복현암이 있던 산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들샘공원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래동화 같은 도입부는 복현동의 이름이 복현암의 이름에서 연유하였다는 추측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남자는 복현동의 유래에 나오는 선녀가 떨어뜨린 보석을 주워 소원을 빌었던 것이고요, 보석이 남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복현동 사람들은 과거를 그저 힘들었던 기억으로 회상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으니 말이죠.

‘복현유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복현동의 짧은 역사를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한영자’어르신, ‘이말순’어르신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뜻 깊은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 배자뭇과 행복현동

윤석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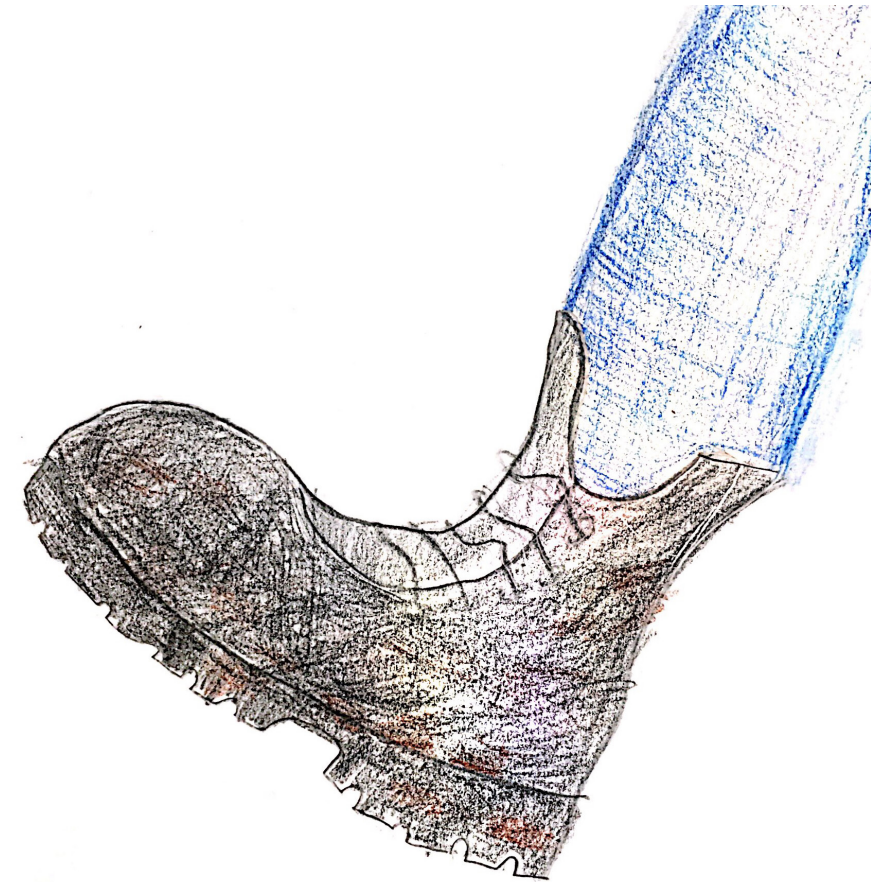
## 1

영천에 ‘옥’이라는 자가 살았다. 옥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의 힘은 장사 같아서 지게를 두 개씩 지고 다녔으며 목소리는 힘있고 우렁찼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시골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장군이 될 운명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옥은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의 자랑이었다. 효성이 깊은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옥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본 옥의 어머니는, 하루는 옥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너의 기운이 내 옆에서 농사만 짓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조만간 너의 동생이 돌아올 것이다. 농사일에 장정이 두 명씩이나 필요하지는 않으니 나는 네가 내 곁을 떠나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저 산 너머에 복현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하더구나. 그곳에 너희 누이가 이미 있으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 곳으로 가서 큰 세상을 보거라. 분명 이 곳보다는 나을게다.”

옥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민했다. 평생 한 곳에서만 살아온 그가 낯선 곳으로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서는 사내로서의 야심도 치솟았다. 그래서 그는 답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서 가장 현명한 윤 노인을 찾아갔다.



## 2

자초지종을 들은 윤 노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곧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네”

윤 노인은 한 상자를 가져오더니 그 속에 있던 신발을 내밀었다.

“이 신발은 자네의 힘이 되줄걸세. 이 신발을 신으면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고, 그 어떤 물건도 쉽게 들 수 있을 걸세”

동네에서 가장 현명한 윤 노인의 말을 들은 옥은 자신감에 가득 찼다. 그래서 옥은 복현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섰다.

## 3

복현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옥은 산을 몇 개나 넘었는지도 모른 채 밤낮을 걸었다. 너무 오래 걸어 눈에 보이는 풍경이 지루해질 때 짙고즈넉한 산 사이에 숨은 마을을 발견했다. 그 곳은 ‘복현’이었다. 복현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뛰어 놀았다. 동네의 어귀로 들어서면, 좁은 골목골목마다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다. 날이 어두워질 때 까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가득하고, 중앙통이라고 불리는 큰 길에는 물지게를 잠시 내려둔 사내들이 삼삼 오오 모여앉아 막걸리를 들이켰다.

누이의 집에 자리를 잡은 옥은 채소장사를 시작했다. 고향에서 농사일을 했던 옥은 채소에 대해 잘 알았다. 또한 총명하고 계산이 빨랐다. 과수원과 밭이 있던 동촌부터 시장이 있던 칠성까지는 족히 10리를 훨씬 넘는 거리였으나 그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그는 윤 노인의 신발덕분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했다. 이런 신기한 능력 덕분에 그는 아침부터 낮까지는 채소장사를 하고 밤에는 목재를 날랐다. 동네사람들은 그가 범상치 않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중앙통에 모여 채소를 다듬던 아낙들은 옥에게 연정의 눈빛을 보냈다. 부지런한 그는 착실히 돈을 모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현의 초가집들은 슬레이트집으로 바뀌어 갔고 그는 어느새 누이의 집에서 독립해 스스로 터전을 잡고 살만큼 안정을 찾았다.

## 4

옥과 그의 신발의 소문은 멀리멀리 퍼졌다. 복현의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던 ‘불행’이라는 자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다. 소문을 들은 불행은 옥의 신발이 탐이 났다. 그 신발을 갖고 있다면 불행도 지치지 않고 여러 사람 사이들을 옮겨다니면서 불행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불행은 신발을 빼앗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냈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불행 중 하나인 ‘질병’을 갖고 옥의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는 질병을 옥의 집에 풀었다. 옥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질병에 걸려 앓아 누웠다.

앓아 누워있던 옥을 찾아가 불행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병은 불치병이네, 100리 밖에 용한 도사가 자네의 병을 고칠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자네의 신발을 빌려주면 내가 금방 뛰어갔다 오겠네.”

불행의 말을 들은 총명한 옥은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신발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행이 또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옥은 불행을 물리칠 방법을 생각해 냈다.

불행이 길을 떠나기 하루 전, 옥은 불행에게 말했다.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신발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신발을 신으면 물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이네. 지치지 않고 산과 물을 건너 꼭 도사를 만나고 오시게.”

## 5

이 얘기를 들은 불행은 신이 났다. 그래서 길을 서둘러 떠났다.

복현의 산을 몇 개 넘으며 그는 진짜 지치지 않는 것에 신기해 했다. 그리고는 빨리 물을 건너보고 싶었다. 그래서 불행은 복현의 입구에 있던 아름다운 못으로 갔다. 못은 깊지 않았지만 충분히 넓어서, 건너보기에는 충분할거 같았다. 불행은 물로 걸어갔다.



그러나 옥의 껍데 속에 속은 불행은 물에 발을 내딛자마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지치지 않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못에 빠져 죽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불행이 옥에게 패배한 못’이라는 뜻에서 이 못을 패자못이라고 불렀다. 패자못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자못’이 됐다. 배자못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복현사람들을 배불리 먹였고, 복현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고 싶을 때 찾는 장소가 됐으며 복현사람들은 배자못을 통해 행복을 느꼈다.

옥은 신발을 잃었지만 신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없이도 불행이 없어진 복현동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행이 사라진 복현 사람들은 행복해졌다. 그리고 옥을 영웅으로 받들었다. 동네의 영웅이자 불행이 없는 사나이인 옥은,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 복현에서 평생 불행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 | 편찬자 윤석환이 남기는 말 |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하며 복현동의 옛날얘기들을 듣는 것은 저에게도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복현동에 살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이 마을의 이야기를 적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이야기를 적으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터뷰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넣어볼지, 줄거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복현동은 어떻게 녹여낼지. 시간이 빌 때면 복현동 곳곳을 걸어 다니며 생각해봤습니다. 머릿속의 도끼질을 거듭한 끝에 어르신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낸 졸작을 올립니다.

대학생과 주민간의 거리를 줄이는데 제가 했던 활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꼭 생겨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불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옥기, 최문헌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기억을 더듬어

# 복현1동 어르신들의 언어가 곧 ‘시詩’였다.

기록 : 스토리 디렉터 심재신

1

주름살말고 “구름살”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

다소 어색한 분위기에서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시’ 시간이 열렸습니다. 복현1동 어르신들의 기록을 담아, 설화 형태로 각색한 <복현유사>가 곧 최종 인쇄를 앞두고 있고 그것을 공유하는 자리가 11월 초에 열리기로 예정되었습니다.



극단에서 활동하는 두 분이 희곡으로 각색한 복현유사의 2편을 낭독하고, 다른 세 편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본인의 삶과 삶의 무대인 복현동을 소재로 한 시를 낭송해보는 기획을 준비하고자 시 수업을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두 시간씩 계획하여, 첫 시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수업에 상당히 진땀을 뺐습니다. 전공이 국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습대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탓일까요? 진행에 진땀 뺀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학교 다닌 이후 처음으로 시를 접하는 것이었고 수십년만에 바라보는 시들에 어쩔줄 몰라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내 수업 형태나 방식에 맞춰주셨습니다.

평균연령 70대이신 복현1동 어르신들에게 사랑 / 봄 / 길을 주제로 한 3편의 시를 읽고 그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표현에 진땀도 잠시 제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80대 어르신께서는

“전봇대에 땅~하고 머리를 부딪친 느낌”이라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해달라고 요청드린 과제가 어려워서 막막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술술 이야기 하신 건 의사선생님과 대화였습니다. 본인께서 치매로 걱정하시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할머니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고,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할 수 있으면 치매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면 되요” 라고 하셨단다. 의사선생님이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건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야기 해주신 듯 합니다.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구름살

이옥기 어르신께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자기가 쓴 시를 읽어보겠다 하시더니, 부인 이름을 부르시며, “45년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 이제 말하겠다. 사랑한다. 됐나?” 라고 하는 자작시를 즉석에서 낭송하셨는데 상남자의 아우라가 느껴지면서도 뭐랄까 풋풋함... 이 느껴졌습니다.

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을 낭송하는 할머니께서는,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이라는 구절에서 ‘주름살’을 ‘구름살’로 읽으셨습니다. 글자를 크게 뽑았지만, 그럼에도 시력이 좋지 않으셔서 구름살이라고 읽으셨을 것이나 일부러 ‘구름살’로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게 품는 느낌의 구름살 가득한 삶.

우리는 이 분들과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양의 구름살이 맺혀있을까요?  
 복현1동 주민분들의 언어가 곧 시가 되는 것을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 2

## 다라이가 없는 집에서 살고 싶다!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4시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두 번째 시 수업을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첫 시간에 살린 문학 감수성을 살리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복현유사 속 이야기소재들을 시상으로 끌어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께서는 청년편찬자들이 지은 복현유사를 또 읽어드려도 재밌어하시고 한층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는데, 지난 복현유사 공유회 때도 심드령해 계신 한 할머니께서 여전히 심드령해 계셨습니다. 그런 심드령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복현유사는 이야기는 정말 잘만들었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셨습니다.

복현유사의 이야기를 통해 시상을 추출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비이야기>의 제비와 좋은 소식, 행운에 관한 이야기, <가람전>의 강과 세월, 물과 관련된 생활에 대한 이야기, <복현암이 남긴 선물>의 “소원”과 “시간여행”을 소재가 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여쭙다가 이 심드령한 할머니로부터 물 다라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인지 개발인지 빨리 해서 낡은 집을 좀 빨리 수리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도시재생센터에서 모아놓고 한다는 일이 뻘이 아는 옛날 일들 가지고 이야기만들고 시 짓는다 하니 심드령하실 수 밖에 없으셨겠죠.

주민분들이 눈치 주셨는지 아님 본인이 역정이 나셨는지, 일이 있으신지 조금 일찍 나가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할머니의 말씀과 태도에서 뜨거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할머니의 심드렁한 태도와 율화 섞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민원 혹은 듣기 거북한 투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불편한 삶에 대한 투정과 불만이 마음을 울리는 한편의 시로 전해진다면 “시”는 단순히 감정의 장치가 아닌 이성의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를 넘어 아닌 “이웃”으로 만드는 관계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동시에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한 수업이었습니다. 낭송시간이 기대됩니다.

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제가 써 본 습작시를 남깁니다.

### 〈다라이 세 개〉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청년이 동네사람들 모아놓고 물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답답해가 말했다

비가 내리면 집에 물이 샌다.  
집이 물바다가 안될라고

다라이 한 개 갖다놓고 똑똑  
다라이 두 개 놓고 똑똑  
다라이 세 개 놓고 똑똑

물은 계속 새는데  
집 고쳐준다는 말도 샌다

물 다라이 수는  
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속한 내 나이랑 함께 는다

내 살아 있는 동안  
물다라이에 물 받을 일 없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이다  
그게 다다  
이 말하고 나왔다

3

두 번의 시 워크숍 시간, 주민분들 대부분 시를 읽은지 수십년이 지나서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적 감수성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현1동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성을 마음껏 표현해주신 모범생 강순덕 주민협의체 대표님의 습작 시를 소개합니다. 강순덕 회장님의 습작 시를 바탕으로 최종공유회에 발표할 시 세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봄이 되면 ~~꽃~~ 잎과 꽃들이 보글,  
 봄이 되면 우리 동네도 바래겠지  
 봄이 되면 우리 생활도 바래겠지  
 봄이 되면 우리 주민이 걱정이 되리  
 봄이 되면 우리 주민이 변화가 있겠지  
 봄을 자 주민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기를 - -

제비  
 겨울이 되어 추우요  
 겨울이 되어 불씨가 없어요  
 겨울이 되어 화성실 기사가 힘들어요  
 겨울이 되면 밤, 새벽 새벽도 힘들어요  
 겨울  
 불씨가  
 겨울이 제비 사냥 구렁이를 잡게  
 봄이 되면, 주민들에게 제비지름, ~~여러~~ 소원이  
 있네 - -

이. 오. 삼세 오랑이 황리  
 가람이 지역에 여러 나무 권들있어  
 가람이 겨울 불현등이 변화가 있겠네  
 가람이 바로 제성실, 주저랑병 변화가 있겠지  
 가람이, ~~리후를~~ ~~정공들~~ ~~화~~ ~~가~~ ~~사~~ ~~나~~ ~~리~~ ~~사~~ ~~우~~ ~~김~~ ~~들~~ ~~가~~ ~~나~~  
 가람이, 조금만 참 건강했으면 좋은일 있어라  
 가람이 내인 불이 ~~화~~ ~~가~~ ~~나~~ ~~리~~ ~~사~~ ~~우~~ ~~김~~ ~~들~~ ~~가~~ ~~나~~  
 병화가 있을것네  
 가람이, 하늘나라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나무가 행복하리

0 기을 아 국회  
 국회 향기 좋은 기을 날  
 살아인 기을 만큼  
 마음도 같이 건다  
~~불꽃~~ ~~부~~ ~~업~~  
 길을 걷다 보면 부성승인길  
 낙영 속에 노란 보라색 구리가  
 나를 반긴다

~~강순덕~~ ~~강순덕~~ ~~강순덕~~ 강순덕의 광 별들,  
 별이 유산하드 많은 날  
 오늘이 제방이 기면 제변이  
 오지 않으리  
 어찌지 방배 ~~어~~ 저 멀리  
 보는 별들 ~~누~~ ~~와~~ ~~세~~  
 나의 ~~마~~ ~~음~~ ~~이~~ 왜 이렇게  
 뜨면 안 지

##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으로 써내려간 詩들

### 〈시 1 : 나의 소원〉

누군가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답답해가 말했다	물은 계속 새는데 집 고쳐준다는 말도 샌다  물 다라이 수는 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속한 내 나이랑 함께 는다
비가 내리면 집에 물이 샌다. 집이 물바다가 안되도록	내 살아 있는 동안 물다라이에 물 받을 일 없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이다
다라이 한 개 갖다놓고 똑똑 다라이 두 개 놓고 똑똑 다라이 세 개 놓고 똑똑	그게 다다

**[해설]** 지역 청년들이 복현1동 주민 인터뷰를 통해 창작한 설화집인 '복현유사' 중 〈복현암이 남긴 선물〉을 읽고 소원을 주제로 주민들과 이야기하였다. 그 중 한 주민의 진정성 있는 소원을 듣고 창작된 시이다. 누수로 인해 물을 받는 통을 준비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통해 극복하고 싶은 주민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으로 써내려간 詩들  
〈시 2 : 제비가 오면〉

겨울이 되면 추워요  
겨울이 되면 보일러가 얼어요  
겨울이 되면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요  
겨울이 되면 밥 세 끼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러시네요.

봄이 되면 복현동은 따뜻해요  
저도 복현동으로 돌아오겠쬬  
꽃피는 봄이 오면  
저와 함께 좋은 소식 오겠쬬

복현동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오기를 기다리신대요.

**[해설]** 지역 청년들이 복현동 주민 인터뷰를 통해 창작한 설화집인 ‘복현유사’ 중 〈제비 이야기〉를 읽고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제비를 떠올리며 쓴 시이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복현동 주민분들의 마음이 도시재생 사업에 전해져,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복현동이 바뀌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올 제비의 말로 담았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으로 써내려간 詩들  
〈시 3 : 가람이에게〉

가람아 이제는

빨래하러 저 멀리 동촌에 가지 않아도 된단다  
물이 부족해 지게로 나르지 않아도 된단다  
길이 잘 닦여 택시가 동네까지 데려다준단다  
똥 푸는 사람 똥 지게 없어도 화장실이 깨끗하단다

가람아 너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제  
요즘은 나이 들어도 배울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마루가 자식을 낳으면 경진초등학교에 보내고 키우라고 해라  
학교 근처에 장미는 얼마나 흐드러지게 피는지 참 보기 좋단다

가람아 너무

힘들었제?

조금만 참고 건강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늘에서 복현동 내려다보고 있으면 부러울텐데

그래도 복현동에서

나와 함께 흐르던 그 가람이가 그립다

**[해설]** 지역 청년들이 복현동 주민 인터뷰를 통해 창작한 설화집인 ‘복현유사’ 중 〈가람전〉을 읽고 복현동에서 시대의 풍파를 겪으며 열심히 살아온 복현동 주민들의 형상인 ‘가람’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 형태로 창작한 시. 옛날 복현동의 열악했던 환경이 많이 나아지고 살기 좋아졌음을 자랑하는 듯 하면서도 옛 복현동의 활기찬 시간에 함께 흘렀던(살았던) 가람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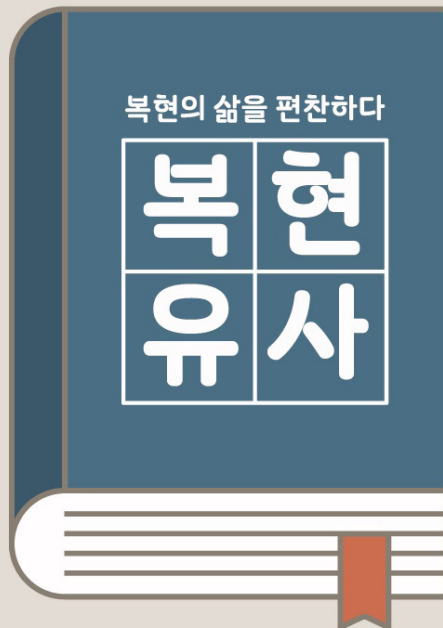


# 복현유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젊은이들이 기록하다

기록 : 스토리 디렉터 심재신

## 1000년 뒤에도 읽힐 책을 편찬할 저자가 되어주세요

마을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다양한 이야기 콘텐츠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워크숍 강사 선생님과 함께 복현동에서 이야기를 발굴하고,  
우리의 아이디어로 재구성하여  
마을 고유의 이야기 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함께 하실래요?



## 1

복현유사 편찬자들을 모집하는 글

2019년 6월 25일 오후 10시

복현1동을 함께 기억하고 기록할 사람을 찾습니다.

복현유사는 사라지는 것을 영원하게 만드는 기록이고, 저물어가는 것을 반짝거리게 하는 기록입니다. 멀게는 2000년 전, 1000년전 한반도 곳곳의 카더라들을 800년 전 로컬에디터 일연 스님에 의해 “삼국유사”로 엮어졌습니다. 삼국유사 속 이야기들은 시가 되고, 음악이 되고, 연극이 되고, 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추억과 기억은 우리 머리속에서 입과 입을 통해서 잊혀질뻔 하지만 “기록”에 의해 기억되고 그리고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장르들로 재탄생하여 새롭게 기억됩니다. 지금의 복현1동은 사라집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잃고, 비교적 살기 좋은 개선된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기억들, 추억들도 함께 잊혀질 수 있습니다.

복현1동은 경북대학교의 대학생 원룸촌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혹은 재난(신천 홍수)으로 인한 피란민촌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인재든 자연재해든 재난을 피해 어렵게 삶을 꾸려나가신 분들의 이야기 속에 앞으로 많은 재난을 극복해야할 우리들이 배울 것들, 느낄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복현1동의 이야기와 지금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공간과 기억은 영영 사라진 겁니다.

천년이 지나 미래인들이 읽고 복현1동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책.

천년 이후에도 복현1동의 모습과 주민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문자로만 담아내는 것 뿐만아니라, 다양한 장르로서의 이야기가 쉽고 재밌게 소화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볼 “복현유사”의 편찬자가 되어주실 대학생/청년 5명을 모집합니다.

## 2

## 편찬자들과 주민들의 첫 만남

2019년 8월 14일 오후 2시

뜨거운 여름,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약 3달 동안 진행되는 복현유사 프로젝트 진행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복현1동은 경북대학교 근처에 있는데 청년들이 사는 주거지역과 기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동네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기존 마을의 모습은 잃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김은윤 센터장님의 복현1동과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소개를 해주셨고, 내마음은콩밭 서민정 대표님의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소개에 이어 제가 복현유사의 활동방향과 내용 및 어르신들과 4시에 합류하여 함께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청년 참가자 5명을 모집하여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한 뒤 “편찬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곧 사라질 지금의 복현1동의 모습과 어르신들의 기억들을 기록하는 뜻깊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현유사는 복현동과 삼국유사의 합성어입니다.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기승전결과 교훈을 갖춘 설화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함께해주신 어르신들은 오늘 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시고, 진행자의 안내도 잘 따라주시고, 함께하는 청년 편찬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복현유사 사업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뻐하게 이해해주시고 카더라부터 전설적인 이야기들, 소위 “야사”라 부르는 것들까지도 이야기해주시는 듯 했습니다.

한 청년 참가자는 복현1동에서 리어카 마늘 장사를 시작해, 배추 농사도 짓고 70이 넘으시고도 일하시는 어르신께 불편한 점, 힘드신 점 없으셨냐고 여쭙니까 하나도 없고 다 좋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이라며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상호존중이 가능해지는 이 느낌이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한 들안길과 두류동에서도 느낀 감정이 다시금 느껴져 좋았습니다.

부끄러워하시다가도 이내 청년들에게 많은 이야기해준 참가자분들중에 80이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해준 내용 중에 웃긴 것이 있었는지 입을 막고 “푸훗”하는 느낌으로 웃으시는게 정말 귀여우셨습니다. 문득 가장 오랜 시간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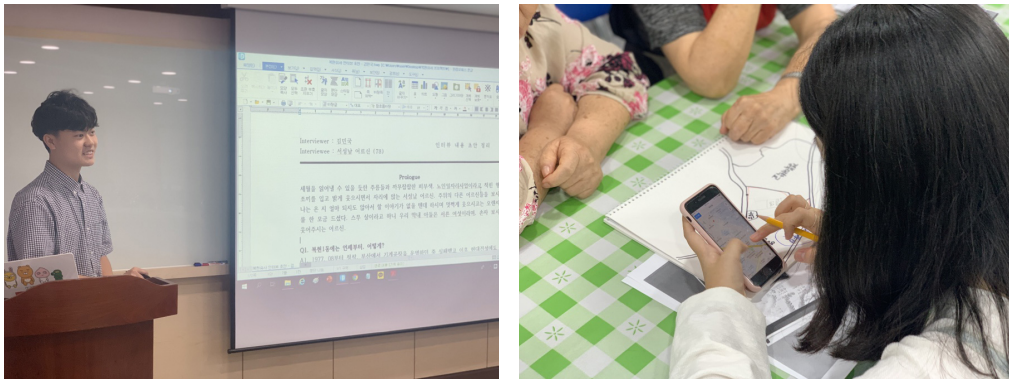
복현1동 어르신들이 겪은 고난과 즐거움, 마을과 생활문화의 변화를 잘 담아낸 이야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됩니다. 처음이었음에도 어르신들도 청년 편찬자들도 정말 잘 따라주셔서 다행多幸이었습니다.

3

조금은 더 가까워진 편찬자들과 주민들의 두 번째 만남

2019년 8월 28일 오후 4시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에서 두 번째 복현유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다섯명의 청년 편찬자님들의 애살과 노력으로 첫 시간 인터뷰, 개별 추가 인터뷰를 통해 복현1동 어르신들의 삶과 동네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 전, 첫 만남 때는 어르신들이 뭔지도 모르고 센터에서 불러 오신 듯한 느낌으로 사실 어안이 병병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들으시더니 엄청 적극적으로 피드백해 주시면서, 앞다투어 이것저것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이야기가 나오면 쑥쓰러워하시면서 웃음지어 보이시고 손자보다 어린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르신들의 삶과 복현동의 이야기들에 당시는 괴로우셨더라도 지금은 즐겁게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지 않던 깨끗한 샘 : 들샘, 새벽부터 물지게를 이고 물을 떠오신 시간, 재래식 공용화장실, 아이들 숙제노트로 쓴 화장지, 얼마전까지 있었던 진주상회의 외상노트, 사지도 않은 품목이 외상장부에 적혀있어 점빵에서 싸운 이야기들, 동촌 금호강까지 가서 빨래하던 나날들, 지금은 없어진 배자뭇과 반딧불이들과 물귀신, 리어카로 칠성시장에서 산 양파를 다른 시장으로 옮겨 팔던 이야기.....

다양한 시간이 중첩된 마을 지도를 그려보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며 3주의 시간동안 복현1동을 사람과 공간과 이야기의 형태로 만나보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청년 편찬자들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답사 및 인터뷰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현유사를 편집, 각색할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가치를 느끼신 청년 편찬자들과, 본인들의 고달픈 삶이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꺼이 들려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힐링하는 기분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되도록, 좋은 책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 4

## 사람과 마을의 잔주름을 사랑하는 시간

2019년 9월 8일 저녁 7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금 계신 분들과 동네의 모습이 곧 사라질 <복현1동>. 삶이 편안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잊으면 안될 우리 삶의 다양한 모양들을 기록하고자 일연스님을 흥내내면서 <복현유사>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청년 편찬자들 5명과 함께 한 추가 워크숍에서는, 함께하는 분들의 따뜻한 감성과 톡톡 튀는 영감에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거의 3시간 동안, 모임공간 <적당한데>에서 진행된 복현유사 편찬 워크숍은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 첫째, 복현유사 편찬 방향 및 구성에 관해서, 주민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이야기들을 각색하여 허구와 사실이 뒤섞인 전설, 동화 형식으로 만들어보기
- 둘째, 복현1동의 주민분들과 만나고 현장을 다녀본 뒤 느낀 점을 살려 복현1동을 의인화 해서 그려보기
- 셋째, 자신의 이야기에 들어갈 삽화를 그려보기

편찬자들 각자가 만난 주민분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의 배경인 복현1동이라는 공간과 기억들 중에서 수십년전의 복현1동의 모습들과 그 때의 기분들, 그리움의 대상들을 어떤 모습으로 구현할지 고민했습니다. 편찬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톡톡 튀어나오는 아이디어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야기에 벌써 재미있겠다 싶은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시간에는 복현1동이라는 마을을 의인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편찬자들 각자의 이야기에 삽입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모두 ‘노인’과 ‘오래된 길’이 나왔습니다. 결국 사람도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마을도 나이가 들면 잔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깔끔하게 없애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을의 오래된 주름길들 더불어 주민들의 주름살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두류동 문화콘텐츠 사업 할 때, 주민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며 그들의 삶을 기록할 때 느낀 감정을, 복현유사 편찬자들 중 한 참가자가 아주 똑같이 느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활동가, 기획자로서 제가 느낀 뿌듯함 혹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5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복현유사 프로젝트 9월 결과공유회 를 마치고.

복현1동 어르신들께 소중한 선물을 선사한 복현유사 편찬자들.

9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5시, 복현유사 편찬자분들이 어르신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재로 상상도 가미하여 만든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에서 가졌습니다. 9월의 결과공유회라 한 이유는 아직 “복현유사”라는 책이 완성되지 않았고 이 책과 연계하여 벌어질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삶 자체, 그리고 그 삶의 배경이 된 복현1동을 소재로 편찬자 5명의 풍부한 상상력과 디테일한 구상으로 5편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발표한 예지님은 “복현암이 남긴 선물”이라해서 복현동의 어원에 관한 설 중 하나인 복현암과, 인터뷰한 할머니의 스토리를 담아 시간여행을 한 남자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린 시절 복현동에 대한 그리움이 자연스레 묻어있어 참 편안하고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규훈님은 “가람전”이라해서 ‘복현1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한 명의 사람이라면 어떨까?’ 라는 상상에서 강처럼 구불구불 난관도 거치고 끝내 바다와 합쳐지지만 그 명맥은 사라지지 않는 성실하고 꾸준한 가람이라는 인물로 형상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부득이 참석은 못했지만 자막과 녹음을 통해 이야기를 공유한 석환님의 “배자못과 행복현동”은 신비한 신발을 얻은 사내 “옥”과 “불행”의 싸움과 예전에 복현동 부근에 있었다는 배자못의 유래를 연결지어 흥미로운 전설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번째, 현진님은 이제 막 태어난 제비의 눈으로 보는 복현1동의 모습과 엄마, 할머니 제비로부터 들은 복현1동의 모습을 떠올리는 식으로 귀여운 동화처럼 전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국님은 인터뷰 대상이 된 어르신의 일대기를 전설 속 도깨비와 연계 하여 “사내와 복현도깨비”라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의 삶이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될 것이라 엄청 느낀 점이 많았던 민국씨라 그런지 평소보다 힘주어 구연 하였습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에 모인 어르신들은 이야기 한편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쳐주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함께 식사하고 다과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씨앗으로 또다른 즐기, 잎,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중 한분은 편찬자들에게,  
“우리 이야기가 마치 전설같기도 하고 동화같기도 하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뭔가 사라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짠하고 슬프더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칭찬은 모두 소중하지만, 가장 와닿은 칭찬은  
“내가 손주가 된 것 같았다, 오늘 이야기 꿈에도 나올 것 같았다. 너무 좋았다!”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만 했지, 새까맣게 어린 청년들에게 이런 재밌는 옛날 이야기 더군다나 복현1동 동네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감회가 새로우셨나봅니다.

저는 정말 한 게 없습니다. 운 좋게도 5명의 능력자 편찬자들이 이야기를 정말 정말 잘 써주셨습니다. 학업도 다른 일도 제쳐두고 집중해주신 탓일까, 정말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들과 복현1동에 대한 애정이 묻어있고 그들의 상상력과 풍부한 감성이 더해져 아름다운 글들이 나왔습니다. 이야기의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저물어 가는 것을 반짝거리게 하는 기록, 복현유사”가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된 것 같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저녁입니다.



6

2019년 10월 1일, 오후 1시

원고를 마무리하며

이제 곧 복현유사가 만들어집니다.

5명의 편찬자가 복현1동 주민분들과 만나 인터뷰하고,  
직접 댁에 가기도하고 복현1동 여러 곳을 두루두루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주민분들이 그리워 한 것들, 기억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였습니다.

제비의 다정한 눈으로 복현1동을 살펴보기도 하고  
전설 속에 나오는 도깨비를 등장시켜 사내를 돕기도 하고  
복현1동의 멈추지 않는 시간들을 강처럼 유유히 빗대어 보기도 하고  
선녀가 남긴 보석으로 복현1동의 행복을 빌기도 하고  
지금은 사라진 배자뭇에 '불행'을 빼뜨리고 행복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복현1동의 시간, 공간, 존재에 사랑을 담아 빚어낸  
아름다운 글과 편찬자들이 직접 그린 삽화까지 더해 복현유사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정도면 일연 스님도 뿌듯해하시지 않을까요?

애정 가지고 어르신들과 만나고 인터뷰하고, 멋진 글 뽑아내 주신 편찬자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소중한 이야기 펼쳐주신 주민분들, 워크숍 진행에 아낌없이 도와주신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김은윤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함께 진행하여 복현유사가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신  
내마음은콩밭 서민정 대표 및 직원분들 특히 굿은 일 도맡아 해준 이영지 매니저님,  
복현유사를 더욱 값지게 해준 김채원 디자이너님께 감사하고 함께 해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현유사를 통해 복현1동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희미해져가는 것들을 더욱 반짝거리게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7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

복현유사 최종 공유회 & 세대공감 복식당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청년들이 기록한 복현유사를 마무리하며...



한적한 목요일 오후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삭막한 강의실이 엄청 정감 있고 다채롭게 변해있었습니다. 복현유사는 예쁘고 따뜻한 책자로 나왔고 최종공유회에 찾아와주신 주민, 청년, 관계자 모두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문법보다는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시간이 좋았는데, 고전문학 시간에 들었던 “전기수”가 복현유사 프로젝트 기획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글소설이 막성행하던 조선 후기에 일반 농민들은 일하느라 책을 읽기에는 어렵고 거리나 장터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기수”들을 통해 문학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청전, 설인귀전 등 작품이 지닌 반전을 살려 흥미롭게 낭독해주었고 클라이막스에는 이야기를 끊어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에 낭독하러 가주기도 하고, 아마 이야기만 낭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상대가 되어주지 않았을까요? 거리를 감성에 젖게 하는 버스커가 많은 요즘, 조선 후기 민중과 양반들을 사로잡은 이야기 버스커가 바로 전기수였습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동네를 자원으로 바라보고 그 자원을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공동체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이해하고 복현유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경북대 원룸촌의 대학생들과 신천홍수/한국전쟁 등으로 오신 피란민 어르신들간 접점도 필요했습니다.

다섯 명의 편찬자분들은 칭찬을 백번천번해도 모자랄 정도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만든 작품들을 다시 가공한 시 3편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습니다. 최종공유회는 어르신들의 시 낭송, 그리고 극단 두 팀의 복현유사 낭독극, 식사와 함께 주민과 청년간 이야기 나눠보는 복식당 순서로 전개되었습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은운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번 복현유사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한 누리라 프로젝트 심재신 대표의 복현유사 진행과정 소개 및 오늘 행사 순서 안내. 이어서 이순자 어르신의 시 낭송이 이어졌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복현유사의 '제비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시 '제비가 오면'을 낭송해주셨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꼬?' 하면서 쑥쓰러워하셨지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제비의 시선으로 복현동을 그리고, 예전 복현동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읽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옥기 어르신은 복현유사의 '가람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시 '가람이에게'를 담담하게 마음을 담아 잘 읽어주셨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복현1동 어르신들의 삶을 자전적으로 담은 '가람전'의 낭송을 들으시던 허영숙님께서서는 옛날에 물동이를 이고 물 길으러 다니던 옛 생각에 잠겨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 낭송으로는 마지막 순서로 남점화 어르신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시를 낭송해주셨습니다. 이 시는 복현유사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복현암이 남긴 선물'의 핵심 소재가 된 '시간여행, 소원' 등의 키워드에서 나온 주민분들의 진심어린 소리를 담아 만들어진 시입니다. 복현1동에 오래 살아오셨지만 여전히 생활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청년 극단 두 팀의 복현유사 낭독극이 이어졌습니다. 극단 라면의 박지은 대표님이 낭독한 “사내와 복현도깨비”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서성남 어르신이 연신 웃으시며 바라보시고, 풍부한 표정과 실감나는 연기에 극 도중에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쳐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무대는 극단 만신의 김지영, 신용호님이 활기찬 에너지로 장식해주셨습니다. “배자뭇과 행복현동” 역시 주인공인 인물 ‘옥’과 악역 ‘불행’의 싸움을 활기찬 연기로 풀어내주셨습니다. 이옥기 어르신, 편찬한 윤석환 친구가 이렇게까지 잘 구현해주셔서 정말 재밌고 뿌듯하다 하셨습니다.

두 극단이 구연하신 복현유사의 이야기들을 보니, 21세기에 전기수를 그리며 기획했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 같아 저로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시 낭송, 극단들의 공연이 끝나고 참여해주신 주민들이 청년들과 함께 모여 교류하며 감상을 나누는 시간인 세대공감 ‘복식당’이 이뤄졌습니다. 복현1동 주민간 관계 맺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복현유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청년과 마을주민이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세대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복식당이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시끌벅적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센터의 행사, 워크숍 때마다 어르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정성을 쏟아주시는 환토리 연구소에서는 차와 다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나의 소원” 시를 낭송한 남점화 어르신은 연극을 보시고 해맑게 웃으시며 나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민 전기수가 태어나는 것, 그것을 향유하는 주민들이 생겨나는 것이 어쩌면 이 복현유사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아낌없이 박수쳐주시고 눈물이 고이시고 힐링 하시는 것 같아 기획자, 진행자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희로애락하는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 직원분들, 내마음은콩밭의 이영지 매니저와 서민정 대표님이 친절하게 그리고 마음껏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해주셨습니다. 디자이너 박슬기님이 5편의 복현유사를 읽고 떠오른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공간을 잘 꾸며주시고 킬킬콘텐츠연구소의 김윤환 대표님과 다른 분들이 무거운 장비를 대동해주셔서 멋진 음향과 조명으로 낭독극과 공연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셨습니다.

뿌듯한 일이 이루어지게끔 해준 많은 분들에게, 뿌듯한 일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삶에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복현유사가 어르신들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되고, 사라지지 않을 기록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젊은이들이 기록한  
저물면서도 반짝이는 복현동 이야기  
복현유사**

※ 이 책의 발행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9길 13, 2층

**전화** 053.939.3550

**블로그** <https://blog.naver.com/bh1dong>

**이메일** bh1dong@naver.com

※ 복현유사의 기록과 편찬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저자 및 삽화** 김현진 김민국 박규훈 이예지 윤석환

**강사**  심재신

**운영**  내마음은콩밭 서민정 이영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 이주은 김준형

**디자인**  내마음은콩밭 김채원

※ 출처 및 저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될 수 있으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복제를 금합니다.